

제19대 노동조합 입후보 취지문

위원장 입후보자 박세현

수석 부위원장 입후보자 김형훈

“한국해운조합 노동조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하여
조합원 여러분 앞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운조합 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제19대 한국해운조합 노동조합 위원장 입후보자 박세현, 수석부위원장 입후보자 김형훈입니다.

저희는 이번 제19대 노동조합 선거에 출마함으로써 조합원 여러분들의 열망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변화와 혁신을 원하는 조합원들의 부름을 받고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정립시키기 위하여 저희에게 주어진 숙제를 시작하고자 나섰습니다!

노동조합 선거출마 라는 목표를 세우고 난 후 저희에게는 “당선여부 보다는 잘 해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거듭 던지고 선·후배님 그리고 동료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그 답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과정에서 지난 10여 년간의 변화 없는 노동조합을 저희를 통하여 쇠신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스스로에게 질문했던 답을 내어놓으려 합니다.

우선적으로 조합원들과의 **“양방향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조 대의원 제도의 적극적 활용과 별도의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조합원들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파악하여 사측과 협상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먼저 앞으로 나아가 낮은 자세로 조합원과 소통하고 이를 통해 조합원의 권익을 넓히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만들도록 약속 하겠습니다.

“강한 노조”가 되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절대 한 개인이 영광으로 탐할 자리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권에 휘둘려 노동조합의 저울추가 기울지 않도록 노동조합 위원장은 승진 하지 않겠습니다.

노사가 대등한 위치에 서야만 발전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반드시 이뤄내야 할 목표가 있으면 사측과의 협상에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실체없는 보여주기식" 노사협의를 지양하겠습니다.

"예산을 고려한 긍정적인 검토", "노사간 추가협의를 통해 확정" 등 실체 없는 노사협의를 사측의 시간 끌기에 이용될 뿐입니다.

노사간 합의가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게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선 앞서 말씀드렸던 조합원과의 소통과 강हन노조가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그 간 꼬여있는 매듭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의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조합원 여러분, 저희에게 새롭고 참신한 노동조합을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한 번 바꿔보겠습니다.

모든 소리를 귀담아 듣고, 특히 약자의 의견에 보다 귀 기울 수 있는 **"새로운 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제19대 노동조합 입후보자 박세현, 김형훈 드림